

HRI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
NOTE**

2010. 12. 27(月)



경제이슈

美 주택가격지수 5개월 만에 상승세 기록
12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경영노트

삼성, LG의 2011년 경영 화두는 '변화'

사회 트렌드

올해의 신조어

저널브리프

에너지 고갈에 따른 미래 한국 변화

洗心錄

느리게 살기

이 보고서는 현대그룹 임원들을 위한 경영참고용 자료로서 외부에 공식 배포되는 문서가 아니오니 무단 복제 및 전제를 금합니다.

□ 美 주택가격지수 5개월 만에 상승세 기록

-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10월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
 - 주택가격지수 월별 추이 : 6월 7월, 8월, 9월 주택가격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1.2%, -0.6%, 0.0%, -1.2% 로 4개월 연속 약세를 기록하였으나 10월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대비 0.7% 상승함
 - 지역별 주택가격지수 증감 : 지역에 따라 10월 주택가격지수는 전월대비 최고 큰 폭으로 하락한 동남중앙지역이 2.3%하락하였고 동북중앙지역은 최고 2.1% 상승함
- 미국의 10월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반전하였으나 압류주택매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4% 하락하여 전반적인 미국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며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

□ 12월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12월중 109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여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
 - 가계소비 : 현재생활형편지수는 93으로 전월과 동일한 반면 향후생활형편지수는 101로 전월대비 1p 하락
 - 경기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95로 전월대비 2p 하락하였으며 향후경기전망지수는 105로 전월대비 3p 하락하여 경기가 향후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증가
 - 물가 : 물가수준전망지수는 140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예상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연평균 3.3%을 나타내며 전월대비 0.1%p 상승
- 설탕 및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현실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향후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가

□ 삼성, LG의 2011년 경영 화두는 ‘변화’¹⁾

- 삼성과 LG 그룹은 경영 환경의 급변에 대응하여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 추기 위해 신사업발굴, 조직문화 개편 등의 변화를 모색
 - 그룹 주력 사업인 전자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 화되는 등 주력 사업의 생존력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이 요구되었음
 - 또한 미래의 먹줄거리가 될 사업 발굴과 새로운 사업 포트폴리오가 필 요해짐에 따라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음

- 각각 ‘창의와 혁신’과 ‘미래 준비’를 2011년의 경영 화두로 삼은 삼성과 LG 그룹은 신성장사업에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신수종사업의 10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 삼성그룹은 제품 외에 기술 과 인재까지 포함한 2011년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
 - LG그룹은 전반적인 계열사 사업에 대하여 중점육성사업과 신성장동력 사업을 선정하고 2011년에 21조 원 투자를 계획 중

< 삼성과 LG의 2011년 경영 화두 >

내 용	
창의와 혁신 (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리더십) 시장 선도가 가능한 경쟁 역량 강화, 신기술 등 기 술 리더십 확보, 브랜드 마케팅 강화, 소프트 역량 확충 •(미래대비) 신성장동력 집중 발굴 및 육성, 글로벌 인재 확보, 유연하 고 역동적인 조직문화 구축 •(경영시스템) 경영시스템의 글로벌화, 상시 리스크 관리체제 확립, 소 통과 상생 협력 강화
미래 준비 (L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자) 스마트폰 3D TV 등 주력 전자부분의 경쟁력 강화, 태양전지, LED 등 미래 사업의 기술력 제고 •(화학) 정보전자소재, 자동차용 배터리, 바이오시밀러 등 신성장 사업 강화 •(통신·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고도화, 스마트 시티, 클라우드 컴퓨 팅, 자원개발 등 신사업 강화

1) 본 자료는 ‘삼성 2011 키워드는(한국경제신문, 2010, 12. 21)’, ‘신성장사업 집중 육성, 미래 준비(서울경제, 2010. 12. 21)’를 요약 정리함

□ 올해의 신조어²⁾

■ 뉴욕타임즈가 정리한 2010년 신생어들은 다음과 같음

■ 사회 분야

- 커피스(coffice) : 커피숍(coffee shop)이 사무실(office)처럼 다용도로 쓰이는 것을 가리킴
- 소팔라이즈(sofalize) : 바깥으로 나다니기보다 집 안 소파(sofa)에 앉아 타인과 IT기기로 관계 맺는(socialize) 풍조
- 포르노 스캐너(porno scanner) : 미 공항에서 논란이 된 전신 스캐너를 조롱하는 말로 알몸처럼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해서 만든 말.

■ 정치 분야

- 페일리니즘(Palinism): 미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로 떠오른 세라 페일린의 전반적인 행태를 말함
- 엄마곰(mama grizzly) : 페일린이 중간선거 중에 퍼뜨린 단어. 이 한마디로 아이들 보호 정책에 열성인 보수 여성을 결집
- 리퓨디에이트(refudiate) : 반박하다(refute)와 물리치다(repudiate)의 합성어로서 페일린이 인터뷰에서 사용. 처음엔 말실수인 것 같았는데 반복해 쓰면서 논박하다는 뜻의 강조어로 자리 잡음
- 셸래킹(shellacking) : 오바마 대통령이 유행시킨 말. ‘크게 한방 맞았다’는 뜻을 함축한 이 단어로 ‘참패’를 시인

■ 경제 반영

-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 : 지난 5월 6일 미 금융시장이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돌발현상을 가리키는 말
- 피크 워터(peak water) : 석유 생산량이 정점에 달해 고갈되기 시작했다는 뜻의 ‘피크 오일(peak oil)’에 빗대 석수 생산이 한계에 달했다는 주장에서 나온

2) ‘프로토스캐너, 피크워터, 커피스...’(조선일보, 2010.12.21)

□ 에너지 고갈에 따른 미래 한국 변화³⁾

- 에너지 자원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래 한국의 에너지 수급 상황과 그 영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가정해볼 수 있음
 - 에너지원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에너지 자원이 고갈되거나 에너지 활용에 제약이 가해진다면 삶의 질이 저하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재생 에너지 상용화에 나서야할 것

< 에너지 고갈에 따른 한국의 변화 시나리오 >

시나리오	내용
시나리오 1: 무방비로 인한 에너지 고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새로운 자원의 발굴 혹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이 고갈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자원고갈에 대한 대비도 요구됨 •(내용) 에너지 사용이 극도로 제한됨에 따라 이동수단의 변화는 물론 산업구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 있어 유가상승으로 인한 자가용 이용비용이 증가하면서 이동 수단이 변화 - 필수재를 생산하는 농·임·어업의 점유율을 유지되나 수송장비 제조업, 서비스업은 고유가로 인해 사양화됨
시나리오 2: 에너지 활용도 극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은 실패하지만 기존의 에너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에너지원의 상용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 •(내용) 국가간 자원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원 관련 산업 위주로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자원을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자원무기화 현상이 발생하며, 자원외교·기술과 자원의 교환·자원전쟁 등 자원을 둘러싼 외교와 갈등이 심화 - 석유 및 석탄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이 후퇴하고, 자원 수급과 관련한 금융 및 보험, 공공행정 및 국방, 서비스산업은 성장
시나리오 3: 신재생에너지의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해결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한국 자원 전략의 궁극적인 지향점 •(내용) 국내에서는 환경오염 문제가 완화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국제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선두주자로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 부상 - 삶의 여유가 증가하면서 문화와 예술 산업이 성장 - 친환경 에너지 개발 산업에 비교 우위를 가지고 외국과 활발한 기술교역을 주도

3) “보도자료: “미래 한국 대학생 논문공모전” 수상 결과 발표”(기획재정부, 2010.11.11) 참조

□ 느리게 살기

한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시점이다. 누구나 계획한 바대로 일이 진행되고, 좀 더 빨리 성공했으면 하고 바란다. 하지만 빨리 성공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스트레스 가중으로 인한 건강 상실 등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인생 자체가 스트레스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건강을 해치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오소희의 <바람이 우리를 데려다 주겠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문제들은 자꾸 쳐다보고

해결하려 애쓰는 것과 상관없이 아주 느리게,

눈에 떨 듯 말 듯 좋아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그 문제의 처방은 기다림과 되풀이 외에

달리 없다는 것도 터득했다.

이 모든 과정은 아이에게도 내게도

시간과 성숙을 필요로 했다.』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라는 바를 빨리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많은 일들은 아주 느리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마치 시간하고 상관이 없다는 듯이 느리게 좋아진다는 것이다. 에크나트 이스워런는 자신의 저서 <마음의 속도를 늦추어라>에서 “몹시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그 틈으로 들어가서 쉬면 됩니다. 당신은 앉아서 마음에 아무 움직임이 없을 때까지 명상을 하여 원기를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완전해져서 돌아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마음먹은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일수록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빠르게 살기’와 ‘느리게 살기’가 우리 생활에 똑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은 종종 작은 일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오고
불행은 종종 작은 일에 태만함으로써 생긴다.

- 빌헬름 부슈(1832-1908): 독일의 시인, 풍자화가